

내가 본 대행 스님

“마음 활용법 가르친 스님”

한국불교의 큰스승이었던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비구 스님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특히 당신의 계사였던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혜거 스님과 자신의 제자들이 의탁했던 범산 스님과는 돈독했다. 스님의 원적 소식에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은 분도 두 스님이었다.

5월 22일 오전 10시, 원적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스님은 평소 오고감이 없는 도리를 늘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그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생사에 입하였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시공을 초월한 큰 원력으로 불도량을 이루신 대행 스님은 가고음이 없다'는 뜻을 지닌 만장을 쓴 혜거 스님은 40여년전 탄허 스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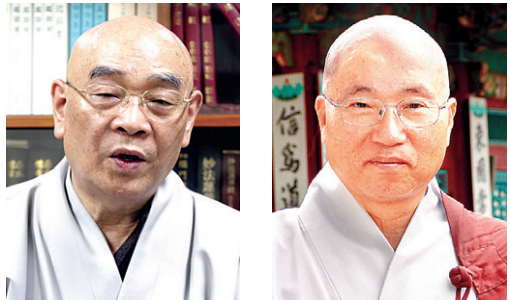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 각별히 대행 스님을 아끼셨다. 늘 스님을 모시고 다녔던 나도 탄허 스님을 시봉하며 대행 스님의 포교활동을 지켜봐왔다. 대행 스님은 60·70년대 안양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수백가마의 쌀을 나눠주며 보시행을 실천했는데 지금의 안양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탄허 스님도 이런 대행 스님의 모습을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극찬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범산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법문에 학문적 이론을 제공한 도반이다. 스님은 ‘주인공 자리’는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중생의 근본 자성에서 하나가 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 스님 제자들의 동국대 석, 박사 졸업논문 지도하며 ‘주인공’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는 공사상, 반야 사상이 들어있어요. 스님이 강조한 생활 속 참선수행은 자성을 찾아가는 포교 일환인 것입니다.”

범산 스님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과 옛 조사 스님 말씀에서 어긋 나는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스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인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해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숙·이나는 기자



혜거 스님

범산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부장 승묵 스님이 포교원 종무원들과 분향소를 찾았다.



인천 경기지역 포교사 50여 명은 기도를 올리며 스님의 전법원력을 기렸다. 조문 행렬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성목 원불교 교구가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스스로 눈뜨라고 초파일 즈음 가셨나

안양 한마음선원 빈소

대행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오전 9시부터 입적 소식을 들은 전국의 신도들과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국내외 25개 한마음선원 지원도 일제히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22일 오후 3시에는 제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입관식이 진행 됐다. 이어 오후 8시 경에는 안양본원 4층 법당에 제단을 국화로 장식한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으며, 임시 분향소로 사용되던 3층 법당에는 대행 스님의 온화하신 생전 영상 범패 모습이 상영돼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부장 승묵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종무원,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한마음선원을 찾아 분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조문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이외에는 다른 화환은 받지 않고 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구니 승단의 큰 어른 스님 입적 소식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를 찾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어른 스님이 조금 더 계셨어야 하는데...”라고 울먹이며 끝내 말문을 잇지 못했다.

정묵 스님은 “스님의 초제가 부처님오신날 진행되는데 평소 ‘한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찾아 너 스스로 눈을 뜨라’는 말씀처럼 단순히 기쁜 부처님오신날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남겼다.

23일 오전에는 학계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범산 스님, 고려

사회 각계 조문행렬 이어져

조문객 분향 후 영상보며 추모
국내외의 25곳 지원에서도 분향
마음공부 등 가르침 실천 다짐

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전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봉명사 승가대학장 도해 스님, 경주 동국대 박물관장 청원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혜원 스님 등이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했다.

분향을 하며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아낸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범산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은 교육방식이 신선했다. 한마

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 기존 조계종단의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계 인사들도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정도마을 자재병원 능행 스님, 프라미스 공동대표 도전·종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했다. 이와 함께 정도회 지도부사 범륜 스님, 내원사 선원장 자광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 등이 방문했다. 이밖에 최대호 안양시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평소 오고감이 없는 가르침을 펼치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원 신도들은 스님의 열반소식에도 답답했다. 하지만 현실 속 깊이 다가온 스님의 큰 자리를 지울 수는 없어 보였다.

강미남 보살은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잃은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대행 스님이 계실 때 안계실 때나 항상 스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동현 씨는 “대행 스님은 내게 부모님과도 같다. 그런 스님이 열반하시니 마음 아프지만 분향소에서 스님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다른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원내 구정탑을 들고 3층 법당에서 영상범패를 들으며 스님의 원적에 대한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妙空堂 大行禪師 年譜

- 1927 정묘(丁卯)년 1월 2일(음력) 이태원 출생
- 1950 상원사서 한암(漢巖) 큰스님을 친견하고 출가의 뜻을 세움
- 1950~1960 강원도 경기도 일대 산야에서 10여년간 산중 고행
- 1960 탄허 스님 계사로 월정사서 사미니계 수지
- 1961 탄허 스님 계사로 월정사서 비구니계, 보살계 수지
- 1963 치악산 상원사 총장 불사
- 1972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대행불교회관’ 건립
- 1981 무량사 우전(宇掄)스님을 은사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소설된 승적 재정리
- 1982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 등록 한마음선원 개칭, 선원장 취임
- 1982 총독 음성군 금암에 첫 국내지원 개원 제5차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증명법사로 참석 (중국불교연구원 주최)
- 1984 본원 합창단을 창단, 음성 포교 시작
- 1985 비디오 범문을 통한 영상포교 시작
- 1986 금왕지원에 최초의 한미음 영탑공원 설립, 이후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 영탑공원 조성
- 1987 <천수경(千手經)>과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뜻으로 풀이한 한글 경전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국외 지원 개원 (모건 힐지원)
- 1992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설립
- 1994 주간 불교신문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주장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설립 불교계 최초의 거시합창단 설립(본원)
- 1995 <뜻으로 풀 한글 금강경> 발표
- 1996 국내 최대 불교 포털사이트 부다피아 ‘Buddhapia’ 개설 불교계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 한미음심성과학연구원 설립 첫 유원지원 독일 카스트(Kaast) 지원 개원
- 1999 안양 본원 대법당 준공 HDTV 한미음불교방송국 개설
- 2000 8월 UN본부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
- 2001 국제 포교 및 영문 법어집 제작을 위한 한미음국제문화원 설립 스페인 카탈루냐 국제포교단 LJS에서 세계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린 외국 스님에게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 수상 제1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미음합창제 ‘임의 소식’ 개최 (세종문화회관)
- 2002 UN에서 제정한 ‘위대한 불교 여성상’ 수상 사보(寺報) ‘한미음저널’ 발간
- 2004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 개최 (본원)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미음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개최 (세종문화회관)
- 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매년 참가
- 2009 한미음불교문화회관 준공
- 2011 제22회 포교대상 수상(대한불교조계종 총정성)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미음음악제’ 개최(세종문화회관)
- 2012 현재 부산 광주, 통영 강릉 등 15곳의 국내 지원과 독일, 캐나다, 태국 등 9곳의 국외 지원을 개원
- 2012 5월 22일, 세남 86세 법랍 63세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入寂)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Korea Conference

2012. 06. 11(월) ~ 16(토)

www.wfb26korea.org
T. 061-654-1008

개회식
6월 12일(화) 오후 4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WFB아카데미 포럼
6월 13일(수) 오전 8시 30분 / 여수 디오션호텔(그랜드 블룸)

세계고승수계대법회
오후 2시 / 여수 흥국체육관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일(목), 15일(금) 오후 7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최 전라남도 불교진흥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전라남도

후원 여수시

주관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위원회